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2년도 제2차 회의

1. 일 자 2012년 1월 26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대 식 위 원 (의장직무대행)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강 태 수 금융안정분석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호 — 2012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1) 담당 부총재보는 정부가 국회에서 2012년도 기채한도 의결을 받아 당행 앞으로 2012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중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하여 신규로 대출할 금액의 최고한도와 상환기한, 이율 및 기타 조건을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대출금 만기시 즉시 재차입하고 있는 점, 금년도에 대정부대출 한도가 크게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당행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가급적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정부대출 ‘부대조건’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당행 대출금을 기초적 적자 총당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당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이와 같이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부대조건을 추가한 이후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하고, 통합계정의 평균 차입일수를 크게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의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이 당행 유동성조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행 대출금 부대조건을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첨언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2년도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와 대출조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2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참조)